

‘익산 쌍릉’ 왕릉급 무덤 실체 드러난다

市-문화재청 조사, 백제 굴식돌방무덤·인골상자 등 발견

길이 378cm·너비 176cm·높이 225cm ... 부여 동하층 능가

익산시 석왕동에 위치한 ‘익산 쌍릉’이 왕릉급 무덤으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일 익산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으로 마한·백제문화연구원소가 수행하고 있는 사적 제97호 쌍릉 발굴 조사에서 백제 사비기의 전형적인 굴식돌방무덤과 현실 안에서 인골을 담은 나무상자가 발견됐다.

쌍릉 중 대왕릉은 입구가 중앙에 있으며 단면육각형의 현실(玄室, 시신을 넣은 널이 안치된 방)로 축조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의 굴식돌방무덤(횡穴式石室墳)으로 확인됐다.

근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상자는 가로·세로 각 26cm이며, 높이는 33cm로, 안에 인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인골은 1917년 쌍릉을 발굴한 야쓰이 세이치(谷井濟一)가 관과 토기, 장신구, 치아 등을 수습한 뒤 무덤 주인공의 인골을 모아 다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덤 주인공의 인골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인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함안항습실에 보관돼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봉분 직경이 약 25m, 높이가 5m인 대왕릉의 내부 구조와 규모도 확인했다. 구조는 백제 사비도읍기의 전형적인 횡혈식 석실분(橫穴式石室墳·굴식돌방무덤)으로, 입구가 중앙에 있고 현실은 육각형으로 나타났다.

현실 크기는 길이 378cm, 너비 176cm, 높이 225cm로 나타났다. 이는 1979년 일본 고고학자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제시한 실측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백제 왕릉급 무덤이 모여 있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현실이 가장 큰 무덤인 동하층보다 넓은 것이다. 무덤으로 통하는 길인 연도는 길이 67cm, 너비 125cm, 높이 156cm로 조사됐다.

관대는 길이 268cm, 너비 82cm, 높이 24cm로, 관에서 떨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금박이 일부 남아 있었다.

조사에서는 현실 조성 과정에서 대형 화강암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 사용하고, 사비도읍기 백제 왕릉급 무덤 중에는 처음으로 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판축 기법



익산 쌍릉 대왕릉 내부(왼쪽) 모습. 쌍릉서 발견된 인골이 담긴 나무상자(오른쪽 위)와 인골(아래).

으로 봉분을 만들었다는 점도 규명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왕릉은 규모나 구조 면에서 왕릉급 무덤이 확실하다”며 “무덤 주변에 제사 행위 흔적 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왕릉 발굴조사 시점은 이르면 올해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 쌍릉의 대왕릉과 소왕릉은 각각 부여에서 익산으로의 전도를 추진한 무왕과 그의 부인인 선화공주가 묻혀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익산 마륵사지석탑 사리봉안기에 무왕의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이라고 기록돼 있고, 대왕릉에서 발견된 치아를 분석한 결과 20~40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피장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쌍릉은 야쓰이 세이치의 발굴조사 이전에 도굴된 상태였으며 관을 비롯한 출토 유물 일부는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연합뉴스



광한루원 ‘벚꽃엔딩’ 6일 벚꽃 축제 ‘벚꽃 로맨스’를 앞두고 남원 광한루원 앞 요천 일대에 벚꽃이 만개했다.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고, 벚꽃이 눈발처럼 흩날리는 산책로에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8일까지 남원 요천 일대는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며 버스킹 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공간으로 변신한다. <남원시 제공>

5~9월 춘향테마파크 ‘춘향만리’ 공연

판소리의 진미를 선보일 창극 ‘춘향만리’가 5월부터 9월 29일까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서 24차례 무대에 오른다. 춘향가의 탄생 배경에 기반한 상상력을

더한 작품으로, 전통 판소리의 진미를 선보이게 된다.

판소리 따라 배우기, 퓨전국악 버스킹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도의 ‘한옥자원활용 야간산설공원’에 6년 연속 선정된 남원시립국악단의 대표 공연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관객을 찾아가다.

개막 공연만 무료이고 이후에는 1만원의 관람료를 받는다. /부안=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부안군 급식지원센터

초·중·고 63개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

부안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유지원을 포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63개교 5250여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부안지역의 농가로부터 생산된 건강친환경농산물 21종과 가공품 8종을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안군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정읍시, 나무심기로 녹색도시 조성

편백 묘목 1500그루 식재

정읍시가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30일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녹색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과 공무원, 산림 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업인 등 180여명이 참여해 부전동 임야 9917여㎡에 5년생 편백나무 묘목 1500그루를 심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 도시 건설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숲은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도 흡수한다”며 “시민들의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지구, 꿈과 희망이 있는 정읍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봄철 총 100ha의 산림에 편백과 백합나무 등 20여만 그루의 묘목과 꽃씨를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 도시 건설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숲은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항일단체, 친일 김성수 ‘흔적지우기’

고택 등 문화재 박탈 요구

항일운동가단체가 친일 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흔적지우기’에 나섰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국가민족문화재인 부안군 출포면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해제를 문화재청에 요청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고택은 친일·반민족 행위로 서훈이 박탈된 인촌의 장남인 김상만의 집(사진)이다.

문화재청은 1984년 1월 14일 이 고택을 국가민족문화재 제150호로 지정·관리해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가민족문화재는 의식주·생업·교통·교육·신앙 등 민간생활과 관련된 풍속과 관습 중 중요한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를 뜻한다”며 “하지만 김상만 고택은 1982년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문화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데도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가 어린 시절 잠시 기거했다는 이유로 2년 후인 1984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물에게 가치를 두어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김성수가 친일·반민족주의자로 판명된 이상 국가의 고택 관리는 역사를 오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촌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인물이지만,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등 친일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친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안=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김성수가 친일·반민족주의자로 판명된 이상 국가의 고택 관리는 역사를 오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리산 구룡계곡 수달·하늘다람쥐 서식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남원시 주천면의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수달은 흑학의 날씨에 계곡의 얼음구멍에 들어가 생활하는 모습 등이 무인카메라에 찍혔다.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1마리지만 발

자국 등을 볼 때 2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북부사무소는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2005년에 하늘다람쥐, 2011년에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할 만한 장소를 찾아 흔적을 확인하거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TÉLÉSIS Paris

텔레시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적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시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자이너 & 브랜드 운영

MUSTARD (Mustard 1482)

KHAKI BEIGE (Khaki Beige 1387)

ELEPHANT GREY (Elephant Grey 1212)

SPRUCCO (Sprucco 1112)

DRY SAGE (Dry Sage 1262)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3㎡ 투자성 좋음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 완도 익산면 특임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주택·원룸·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보면 대지 991㎡ 집 79㎡ E01실에서 차로5분 1억5500
- 월산동 송광리아파트 옆 토지 166㎡ 건평 180㎡ 3세대생활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로옆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투자·매도·교환

- 농성동 건강협회부근 준주거 139㎡ 주택있음 상가적합 2억6천
- 동구 충장로5가 오지 1876㎡ 개발에적합 공사가 50억 매도100억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에적합 공사가 8억4천 매도36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첫집등적합 1억7300
- 장성 모달 땅 364㎡ 건평 164평 김정 5억6천 은행 3억 매도 4천
- 고흥 니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성동 시장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장성 북이수 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용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남향 소방도 접 매도3억8천
- 충장로 5가 도로옆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땅 516㎡ 4층건물 790㎡ 공사가 6억 매도 16억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달·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좋은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불 대폭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